

청소년 인권 기행

“역사속으로 인권속으로”

- 일시 : 2008년 8월 12일, 13일, 14일
- 장소 : 센터 및 서울시내 곳곳
- 주관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모름	
내 이름	



청소년 인권 기행

“역사속으로 인권속으로”

- 일시 : 2008년 8월 12일, 13일, 14일
- 장소 : 센터 및 서울시내 곳곳
- 주관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모 듬	
내 이 름	

## 역사속으로 인권속으로

### □ 사업목적

- 청소년들이 역사적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역사적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사적 사건이 갖는 현재성을 이해한다.
- 청소년들이 역사 속에 내제되어 있는 인권의 의미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킨다

- 일 시 : 2008. 8. 12일, 13일, 14일
- 장 소 : 청소년문화센터 4층 세미나실
- 주 관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인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낯설고 나하고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역사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이라고 한다면 생각만해도 머리가 아프지요? 하지만 인권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인권과 관련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에서도, 버스와 전철, 학교와 집,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인권은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다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기행에서는 현실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권침해를 찾아보고 그것의 해결을 찾아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네요.



## 자료집 길라잡이..

1p	인권기행에 대하여
2p	자료집 길라잡이
3p	아동인권선언 전문
5p	인권기행 일정표
6p	인권이란
7p	누구나 이동할 권리가 있어요
9p	가난은 죄가 아니잖아요
14p	세상의 절반은 여성
19p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27p	6월항쟁과 2008년 촛불
33p	인권기행 잠깐퀴즈
34p	자료찾기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의 열린 문화 자유 공간”이라는 가치아래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는 청소년의 공간입니다. 문화예술, 체육, 교육 프로그램이 상설 진행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과 CA, 특별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체육관, 컴퓨터실, 탁구장, 당구장, 무용연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어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센터로 오세요!

Tel : 031-654-5400      www.ptycc.or.kr

# 아 동 권 리 협 약

##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 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인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제3조

어린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 제11조

우리는 유과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과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 제12조

어린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음은 안된다.

###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주어야 한다.

###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 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기쯤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를 해칠 권리가 없다.

###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이하 생략 -

청소년을 위한 세계인의 약속- '유엔국제아동협약'은 UN의 국가들이 1989년 뉴욕에서 작성해서 발효했으며, 한국은 1991년 국회에서 비준했습니다.

<참고> 청소년·녀 좋은 세상 만들기-청소년 인권법회(교육) 자료집/원불교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일정보

일정	시 간	프로그램 내용	장 소	
8월 12일 (화)	13:00~14:00(60')	◦ 인권감수성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센터	
	14:10~14:30(20')	◦ 장애인 이동권과 생존권		
	14:30~14:50(20')	◦ 국민저항권과 여성권		
	15:00~15:20(20')	◦ 민주주의와 노동권		
8월 13일 (수)	09:40~09:50(10')	◦ 집결(인원확인 등) 및 일정확인	일본대사관	
	09:50~11:10(80')	◦ 출발 및 도착		
	11:10~12:00(50')	◦ 점심		
	12:00~13:30(90')	◦ 끝없는 싸움 수요집회(여성권)		
	13:30~14:00(30')	◦ 이동		연세대
	14:00~15:30(90')	◦ 이환열과 610항쟁(저항권)		
	15:30~16:00(30')	◦ 이동		인권기념관
	16:00~17:00(60')	◦ 대공본실과 박종철		
17:00~	◦ 집으로			
8월 14일 (목)	09:40~10:20(20')	◦ 집결(인원확인 등) 및 일정확인	버들다리	
	10:00~11:30(90')	◦ 출발 및 도착		
	11:30~12:30(60')	◦ 평화시장과 전태일		
	12:40~13:00(20')	◦ 이동		
	13:00~14:00(60')	◦ 점심 및 휴식		세운교
	14:00~15:00(60')	◦ 청계천 복원과 노점상		
	15:00~15:30(30')	◦ 이동		청계광장
	15:30~16:30(60')	◦ 청계천과 장애인이동권		
	16:30~17:00(30')	◦ 평가 및 휴식		
17:00~	◦ 집으로			

## 인권의 정의

1946년 유네스코(UNESCO)의 탄생과정에서 기구의 성립목적은 '정의, 법의 지배, 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하여 여러 국민들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한 것'이라고 밝힌 이래,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도출된다. 이 선언에 제시된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표현한 것이다.

-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이다.
- 인권을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이다.
- 인권은 개인과 집단을 포괄한 권리이다.
- 인권은 정당성의 기준으로서 국가권력을 제어한다.
- 인권은 사회변화를 요구한다.

## 인권의 내용과 발전

- 1) 인류역사는 인권확장의 과정이다
- 2) 카를 바사크의 인권 3세대론
  - 1세대 : 자유권 중심의 인권
  - 2세대 : 사회권적인 인권
  - 3세대 : 자결권/ 평화에 대한 권리, 문화권, 환경권 등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인권의 의제들





## 누구나 이동할 권리가 있어요 - 장애인 인권

우리 사회의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약 10%라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을 길거리에서 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든 것이 사실이다. 10명중 1명이라는 장애인을 자주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부터 우리사회의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 1. 장애인이란?

#### \* 장애인에 대한 호칭 :

최근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이 단어는 공식적인 자리나 체면을 세워야 하는 자리에서 장애인들을 향한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비장애인적 관점에서 마련된 단어라 할 수 있다. 이마저도 비장애인 중심의 그럴듯한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다. 장애우라는 말은 장애인을 비주체적으로 만들고 타인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우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굳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지어 말하고 싶다면 "장애인"이라고 사용하거나 "몸/정신이 불편한사람/불편한사람" 이라고 표현하는게 차라리 완곡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 장애인이란 단어가 가진 모순 :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인의 다리가 가진, 팔이 가진, 정신적 불편함이 가진 장애인인가? 아니다. 사회적 장애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키가 2m가 넘고 10%정도의 사람만이 1m이어서 세상의 모든 계단이 2m키를 가진 사람에 맞게 지금보다 2배정도 높아졌다고 치자. 그렇게 되면 키가 1m 밖에 안되는 10%사람들은 계단을 오르기 힘든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 여자가 90%고 남자가 10%라서 애초에 남성용 소변기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세상의 10% 남자는 소변을 처리하기 힘든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위의 두 상황에서 장애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위한 제반을 마련하지 못한 사회의 장애인인가? 당연히 위의 상황을 설명하려면 사회의 장애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들의 장애는 사회의 장애가 아닌 사람들의 장애라고 판단하는가? 애초에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다양화하고 양산하기 쉽도록 개발했어야 했다. 하지만 사회는 그만큼 똑똑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장애는 자신들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비롯된 장애이고 사회로부터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 2. 이동권(Rights of Mobility)이란 무엇인가



이동권이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통행(trip)을 할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단(mode) 및 동선을 확보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이동권은 크게 건축물이나 시설과 같은 정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그리고 안으로·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구조물의 편의시설)와, 동적인 교통수단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일반적 도로 환경의 문제(인도의 턱, 횡단보도, 유도 블록 등)를 포함하게 된다.

### 이동권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있어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Rights of Mobility)은 하나의 권리로써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공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공기를 마시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써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동권의 문제에 있어 일차적 주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장애인, 노약자, 아동, 임산부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결코 이 사회의 소수자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며, 아동의 기간을 거쳐 노약자의 시기를 맞게 되고, 여성의 경우 임산부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의 발생 요인 중 89.4%가 각종 질환 및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현실은, 이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일시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장애인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며,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권리

이러한 이동권의 문제는 단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없다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다양한 활동영역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배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동약자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구축된 한국 사회의 구조 속에서, 전체 장애인구 중 51.6%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으며, 70%이상의 장애인들이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현실은 이러한 문제의 한 측면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며,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요. - 인권의 관점에서 본 빈곤

## 1. 빈곤문제가 왜 인권문제인가

가난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편안하게 쉴 방 한 칸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거나 철거의 위협에 시달린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걱정하면서 '생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의무교육 이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소외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범위가 제한되고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 건강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위협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 밖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받거나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다.<sup>1)</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유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 그 이상의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사실만으로 사회로부터 배제된다. 즉 가난은 개인이 자초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무능력과 게으름을 떠올린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고 그 짐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빈곤문제를 개인에게 축소시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가난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분배의 문제이고 평등의 문제이며 구조적인 폐해의 결과이다. 그것은 빈곤이 세습되는 상황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인간을 인간일 수 없게 하는 기본적인 권리의 '박탈'이며 기회와 선택권의 도발(挑發)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내용들, 즉 건강하게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하면서 창의적인 생활을 만들고, 인간의 자유, 존엄, 자부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속에 살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 것이다. 빈곤문제는 복합적인 사회적 소외의 결과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인권 침해이다. 인권이 인간 권리의 '실현' 문제라면 빈곤은 인간 권리의 '박탈' 문제이다.



1) 권리의 내용으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권리는 물론,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권, 쾌적한 환경권 같은 경제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개인의 안전권이나 재판권, 참정권 같은 시민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 2. 빈곤문제는 다양한 권리의 박탈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빈곤 개념은 어느 하나의 관점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빈곤은 소득이 저조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결여되면서 자신의 능력이 송두리째 박탈당하는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사회적인 박탈이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빈곤문제가 경제적인 박탈의 형태로 드러나지만 이면의 중첩된 박탈과 배제, 소외의 측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3. 빈곤의 다양한 얼굴들

지구촌에는 오늘날 5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 가운데 5억은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반면에 45억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다. 부자들은 수적으로 소수라는 자신들의 약점을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거액의 달러로써 보완한다. 달러 표시로 십억만 장자들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358명의 재산만도 지구촌의 극히 빈곤한 주민 층의 절반 가량, 즉 약 25억 명의 연간 소득보다도 많다. 이처럼 현실에서 빈곤 문제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이라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하지만 현시기에 정리해야 할 빈곤의 문제는 소득 불균형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측면으로만 정리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빈곤은 인간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낮은 소득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이로부터 식생활의 저하, 주거 수준의 하락,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의 하락 및 포기를 동반하게 된다. 나아가 가족의 해체, 범죄율 및 자살율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은 사회적 지위도 약해지므로 소외감은 더욱 증대되고 결국 사회에서 자신을 실현시키는 길은 더욱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된다. 이러한 빈곤이 가진 여러 얼굴 이면에는 선택권을 박탈당한 절망하는 사람들과, 많은 경우, 속수무책인 정부들이 자리하고 있다.

## 4. 노점상의 형성과 역사

90~2,000년대의 노점상은 가족들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IMF구제 금융이후 정리해고와 실업으로 노점상은 거의 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래들어 급속히 늘어나는 유통마트들은 엄청난 물량 공세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물품으로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합법적 영세 유통구조들의(동네 슈퍼, 구멍가게) 몰락을 가져왔고 유통마트가 건설되면 주변에 존재하는 노점상들의 탄압이 꼭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역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역사권의 공사와 문화의 거리등의 공사 등으로 노점상들은 또다시 밀려나게 된다. 이밖에도 2002년 월드컵, 아펙정상회담 등의 국제행사때 자행되는 노점상 단속은 여전히 80년대의 구시대적인 노점상단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5. 노점단속 및 철거의 문제점

### 1) 경제적 권리-인간다운 생존권의 침해

대안적 생계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노점단속 및 철거는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조2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생계형)노점상의 경우 공식적인 경제부문에 밀려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생계방편으로 불안정 노동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실업대책이나 사회복지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점상 양산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안적인 생계수단 혹은 사회복지를 제공하지 않은 채 노점을 단속·철거함으로써 노점상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대안적 생계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노점단속 및 철거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보장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1항을 위반하고 있다. 노점은 생계유지를 위해 자유롭게 선택한 노동으로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정부는, 동 규약 4조(권리제한의 근거)에 의하지 않는 한, 노점이라는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의 기회를 자의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도시미화' 혹은 '보행권 보호'의 이유로 노점을 단속·철거해왔다. 그러나 '도시미화'는 인권제한의 근거인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지증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할 권리'의 정당한 행사인 노점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로 인정될 수 없다. 노점단속의 또 다른 명분인 '보행권' 보호 역시,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또한 6조1항은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계수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안적인 생계수단 혹은 생계비를 제공하지 않는 노점단속은 이 규약의 위반이다. 나아가 6조1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도록 고용보장 정책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 조치는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실효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



## 2) 폭력적 단속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인격권 침해



정부는 노점상의 문제를 저소득도시민민의 실업대책과 생존권차원이 아닌 거리질서 유지, 관리차원과 사회문제화에 따른 치안유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하여 정부는 오직 단속을 목적으로 고용된 용역들은 단속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생계형)노점상들은 단속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며, 이에 따라 물질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인 단속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의 심각한 위반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90년대 중반 이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여 노점상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용역단속은 폭력적인 단속을 야기하지만, 관련 국가기관은 이를 묵인함으로써 인권보호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은 국가가 14(c)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우, 15(d)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혹은 집단을 규제하지 않은 경우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폭력적 용역단속을 묵인하는 관련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 행위이다.

빈곤의 문제, (생계형)노점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은 다각적인 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노점상의 단속과 억제정책은 노점상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구조적원인의 해결과 완전고용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중장기 국가정책의 수립을 전제로, 현실적으로 당면한 저소득도시민민의 실업대책과 생존권의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합법화와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통한 단계적 감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조2항**

모든 인민은 모욕의 원인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전쟁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리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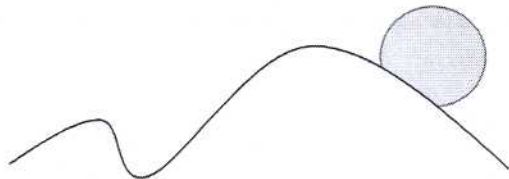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1항**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예모장





## 세상의 절반은 여성 - 여성인권

### 성 - 성의 차이, 성의 역할, 성의 차별

태어나면서부터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가? 아니면 남성이나 여성으로 길러지는가? 살아오면서 흔히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장벽에 부딪힌 적은 없는가?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흔히 우리는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구별하여 남자에게는 남성다움만을, 여자에게는 여성다움만을 강요한다. 남자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힘이 세야 하며, 나약하고 안전하고 내성적인 남자는 은연중에 시원찮은 남자로 대접받는다. 반면에 여자는 섬세하고 부드러워야 하며 과감하고 적극적이면 극성맞고 안전하지 못한 여자라고 눈총을 받는다.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남자와 여자는 걸음습이 다르고 체력도 차이가 나며 성호르몬도 다르게 분비된다. 이 생물학적인 차이는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된 것으로 비교적 안정되고 지속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에 비해 사회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성의 차이는 오랜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가 주입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심리적 차이나 사회적 차이는 경제 활동이나 문화의 특성에 따라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사회 문화적 성은 생물학적인 성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이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사회 문화적인 차이와 동일시하여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성 역할을 익히는 가운데 각각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남녀의 정체성은 거의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는 고정 관념으로 자리잡는다. 시몬느 보바르는 『제2의 성』에서 여성의 억압과 차별이 사회적인 산물임을 밝혀냄으로서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보다 사회 문화적인 성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결정짓는 더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즉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우월하고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은 오랜 사회화 과정 속에서 남성 중심의 지배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만이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필연적으로 한쪽 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 여성 문제 - 인간 문제

현대 여성은 과거 여성들과는 달리 당당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다. 그렇지만 여성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의 삶에는 남성의 삶에 비해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암초가 많으며 이를 여성 혼자만의 힘으로 제거하기는 역부족이다.



여성의 문제가 단지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특수한 문제라는 통념이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남성 중심 지배의 문화 속에서 남성이 어느 정도 특권과 이익을 당연히 누렸다면 이제 그 이익을 여성에게 되돌려 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여성의 문제는 남성의 문제이며 이 역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이 두 문제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인간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남녀가 마주 앉아서 풀기에는 너무도 무겁다.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함께 풀지 않는다면 풀릴 수 없는 숙제이다.

지구의 반은 여성이며 하늘의 절반은 여성이 떠받치고 있다. 인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삶이 고통과 절곡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인 어머니가, 그리고 딸이 계속 억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남성은 여성의 불행을 방관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한쪽 성이 자신을 실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의와 갈등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다른 쪽 성도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 [젠더] 성(性)에 대한 영문표기 섹스(Sex) 대신 새로 쓰기로 한 용어.

1995년 9월 5일 북경 제4차 여성대회 GO(정부기구)회의에서 결정했다. 젠더와 섹스는 우리 말로 '성'이라는 같은 뜻이지만 원어인 영어로는 미묘한 어감차이가 있다. 젠더는 사회적인 의미의 성이고, 섹스는 생물학적인 의미의 성을 뜻한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대수 국가가 주장하는 젠더는 남녀차별적인 섹스보다 대등한 남녀간의 관계를 내포하며 평등에 있어서도 모든 사회적인 동등함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의 역사

18세기말의 프랑스 혁명을 뒤이은 서구 각국의 시민혁명으로 '시민의 인권'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여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에는 변함이 없었다. 시민이란 '경제력 있는 자본가 계급의 백인 남성'만을 일컫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과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1940년대 이전까지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노예해방선언을 발표했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 당시, 흑인노예에게까지 주어지던 투표권이 여성에게만은 주어지지 않았다. 미국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1920년대에 와서였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기까지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투옥되거나 시형당해야 했다.

20세기 들어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와 함께 일어난 공산혁명의 불은 노동자들의 지위와 인권을 급진화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성의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받기 일쑤였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고 헌법에 성적 차이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권리들을 얻기 위한 어떠한 투쟁의 과정 없이 애방과 동시에 참정권과 법적인 평등을 부여받은 대부분의 식민지 독립국가의 여성들에게 이 권리들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남성에게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의 식민주조는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 1. 정신대-일본군 위안부란 무엇인가?

정신대라는 말은 일제가 제국주의 전쟁에 필요한 인력동원정책에서 나온, 누구나 일본제국에 '몸바쳐 일하는 대원'이란 뜻의 제도적 법적 용어이다. 1937년 말 중국침략 이후 국민총동원령을 공포하여, 식민지 한국인 남녀 모두에게 정신대를 강요했다. 그 이후 여성에게는 1944년 8월 "여자정신근로령을 제정, 공포했다. 이후부터 정신대란 말은 전쟁 노동력으로 동원된 여자에 한해서 쓰게 된다. '여자정신근로령'에 의거하여 조직된 여자근로정신대는 남자들의 전쟁 동원으로 인해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근로정신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끌려가 위안부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대'와 '위안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쓰이게 되었으나 정확히 따지면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정신대 위안부를 일컬어 '성노예' 또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것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다. 즉 '정신대 위안부'는 일본 정부와 군부의 정책에 따라 감행된 일본군의 조직적인 집단 강간과 윤간 관리 제도에 의해 피해를 당한 여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

일본군의 성 노예로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강제동원하고 위안소에 집단적으로 감금, 반복적으로 성폭행 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1992년 1월 10일 위안부 범죄 사건과 관련된 일부 공적 자료가 일본 방위청의 문서고에서 발견됨으로써 이 범죄사건의 주범이 바로 일본 정부와 군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일본 정부와 군부는 "중군위안부"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일본군 장병들의 사기 제고.

둘째로 점령지들에서 일본군 장병들에 의한 강간과 이로 인한 성병 만연의 방지.

셋째로 현지 주민들에 대한 폭행과 약탈을 방지하고 점령지들에서의 치안유지.

### - 군 위안부 강제동원방법

일본 정부와 군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중군위안부"에 대한 모집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네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째, 좋은 직업을 알선해 준다고 유괴하여 위안소에 데려다가 억류한 후 '중군위안부'로 강요한 형태 둘째, 거주지에서 혹은 여행 도중에 납치하여 강제 연행하여 '중군위안부'로 강요한 형태 셋째, '정신대'의 명목으로 모집하였다가 후에 '중군위안부'로 다시 강제 연행한 형태 넷째, 빛에 팔려 민간업자에게 넘겨진 형태 (이 경우 민간업자는 군의 지령을 받고 중군위안부 모집에 나선 자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둘째의 경우고 첫째- 넷째 -셋째의 순서이다.

(취업사기, 협박 및 폭력, 인신매매 및 유괴, 근로정신대 제도를 통한 동원 등)

지금까지 강제동원관련 가장 유력한 증인 자료는 1942년부터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야마구찌 노부보국회에서 조선인 중군위안부들의 모집을 담당했던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다 그는 전쟁 기간동안 육군 본부로부터 트럭과 군인 등을 제공받아 조선 국내에서 여성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강제로 끌어갔다고 하였다.

#### - 피해현황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인 여성들은 모두 2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서 대다수가 사망했으며 1992년부터 신고하기 시작해서 2000년 12월까지 모두 158명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이 40명 가량이고 생존해 있는 분은 정부의 통계에 들어 있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하여 141명 정도이다. 1997년 말경에 당시 신고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131명으로 모집 당시 연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3. 전쟁 종결 후 위안부들에 대한 취급과 생활처지

#### - 귀향 당시의 위안부들이 겪어야했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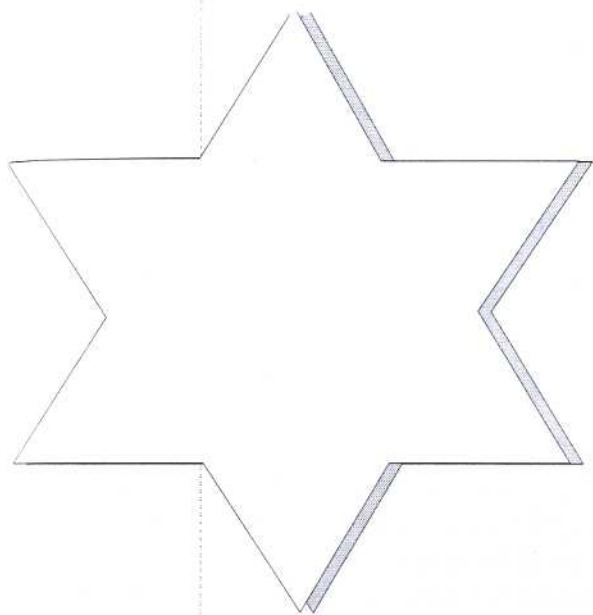
전쟁 뒤 현지에 남겨진 위안부들 중 일부는 기를 쓰고 귀국의 길을 찾았다. 그러나 몸이 아픈 위안부들은 현지에 그대로 남기도 귀국을 포기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귀국해서도 몸을 버렸다는 자괴감 때문에 도시의 식당과 접객업소를 전전하면서 결국 고향을 등진 채 살아가야 했다. 고국에 돌아오신 대부분이 위안부였던 과거를 숨겨야했다. 어쩌다 알게 된 경우는 마을에서 외면당하기도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버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행여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도 과거가 알려져 쫓겨났거나 아이를 낳지 못해 이혼 당하는 경우가 흔했다. 또 남자의 두 번째 아내로 들어간 경우도 있다. 또 더러는 몸에 남아 있던 성병균 때문에 2세가 정신병에 걸린 기막힌 경우도 있다.

#### - 할머니들의 건강문제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 분들도 대부분 갖가지 부인병을 가지고 있고 위안소 시절에 얻은 병이 계속 후유증으로 남아있으며, 군인들의 폭력 때문에 생긴 상처가 아직 큰 흉터로 남아있으신 분들도 있다. 또한 남자에 대한 불신과 혐오, 인간기피증, 피해의식 등으로 정신조차도 온전치 못하신 분들도 있다.

매모장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경제성장의 그늘 전태일 - 노동인권

### 1. 전태일의 시대적 배경(60년대)

60년대 후반은 자본주의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박정희 정권은 자본주의화를 위한 주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제 36년의 보상금을 받는 한일협정을 1965년 체결하였다. 한일협정 체결 이후 도입된 일본의 차관(무상공여 2억 달러, 유상차관 3억 달러)으로 수많은 기업이 설립되면서 공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다.

급속하게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시기에 와서는 공장 노동자들도 급증하게 되었다. 전태일이 일했던 평화시장 주변에도 68년 10월에 연건평 1천5백 평의 통일상가가, 69년 8월에는 연건평 5천 평의 동화시장이 들어서면서(연건평 7천4백 평인 평화시장은 61년에 만들어졌다.) 노동자의 수도 2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구로공단이 만들어진 것도 이 시기였다. 이렇게 되면서 점차 젊은 세대들에게는 공장 노동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지향으로 되었다. 전태일 열사가 비공식부문을 전전하는 떠돌이 생활을 마감하고 평화시장 노동자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 것도 1965년 가을 부터였다.

공업화가 빠르게 진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농은 그보다도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 박정희 정권이 저곡가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서 농업이 파탄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960년부터 75년까지 사이에 무려 700만의 농민이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밀려들었다. 그래서 상대적 과잉인구가 발생하면서 직장을 갖지 못한 채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빈민층도 더욱 늘어났다. 달동네, 판자촌, 사창가도 함께 늘어났다.

공장에 취직한 노동자들의 상태라고 나올 것은 없었다. 과거에 입만 열면 이야기했듯이 우리 것이라고는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뿐이었다. 그런데 이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은 저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노동자들에 대해 극단적인 저임금,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를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이름보다는 '공돌이' '공순이'로 불리는 차별과 멸시천대까지 당해야 했다.

### 1) 노동운동을 시작하기까지 전태일의 삶

전태일은 1948년 8월 26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이 시기는 1945년 40여년 간의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고 곧이어 분단, 전쟁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적 격변기였고 소용돌이의 시대였다. 외할아버지는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에 앞장섰다가 처형되었고, 아버지 전상수 씨는 대구 어느 방직 공장의 노동자로서 전평의 1946년 총파업에 참여한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전태일이 여섯 살 되던 1954년 그의 가족은 먹고살기 위해 무조건 서울로 상경한다. 갖은 고생



끝에 먹고 살만하게 되면서 전태일은 8살 때 남대문 고  
등공민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그러나 4·19 혁  
명 직후에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면서 그의 가정은 다시  
경제적 파탄을 겪게 되고, 전태일은 4학년 초에 학교를  
중퇴한다. 여섯 식구의 가장이 된 전태일은 동대문 시장  
에서 삼발이 장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물건을 판매한 돈

으로 가족의 식비를 충당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위탁판매  
소 미수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열 두 살의 전태일은 월말 계산일을 앞두고  
가출하여 구두둑이 생활을 한다.

헐벗고 굶주리며 방황하던 그는 가출 1년 만에 대구로 이사하여 모처럼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기다리고 있던 집으로 돌아간다. 1963년 열 다섯에 그는 가정형편상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다니는 청옥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한다. 전태일의 일기는 이 청옥 고등공민학교의  
확장시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는지를 눈물겹도록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청옥에서의 확장시절은 1년을 넘기지 못했다. 배움을 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전태일은 고학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동생 태삼을 데리고 가출하여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나 서울은 두 형제에게 생존의 틈바구니조차 내 주지 않았고 고학의 꿈은 가출  
3일 만에 대구로 돌아오면서 끝나게 된다.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려워져 이듬해인 1964년 설날 아침 어머니가 식모살이 하러 서울로 떠나게  
된다.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 아버지의 매질에 견디다 못한 전태일은 보름 후에 막내 동생 순덕을  
업고 어머니를 찾아 서울로 올라오지만 잠잘 곳조차 없는 서울에서 추위와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 순덕을 보육원에 맡겨야 했다.

열 여섯 살까지의 성장과정에서 그는 구걸, 구두둑이, 신문팔이, 손수레 뒤밀이, 우산팔이,  
아이스케키 장사, 담배꽂초 줍기 등 안 해본 것이 없는, 그 시대 밑바닥 인생의 삶을 전전하였다.  
그 밑바닥 인생의 삶이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킬 수 없는, 처절하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삶이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별레보다 못한 인생이지요. 주인 있는 개보다도 천한  
인간입니다.” 그것이 어찌 전태일만의 삶이었겠는가? 전태일이 살아가면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  
밑바닥 인생이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

전태일은 이 저주받은 현실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부정  
당하는 비정한 현실에 부딪쳐 몇 번이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그는 인간의 존엄을 부정해 오는 현실에 대해 온 몸으로 깨우쳐 나갔다.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우리 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통찰할 수 있었다.

전태일의 삶은 약하다 약한 한 밑바닥 인생을 짓밟아 오는 야만적인 현실과 어떤 야만도 결코

굴복시키지 못하는 인간의 존엄함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평화시장에서의 노동운동은 그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 2) 평화시장의 전태일

1964년 가을쯤 전태일은 시다로 평화시장에 첫발을 들여놓게 된다. 열 네 시간 노동에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일당 50원. 구두닦이 시절보다도 적은 수입이었지만 그에게는 기술을 배우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다. 평화시장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그는 미싱사가 되지만 기술을 익혀 부모를 편히 모시고 배움의 길을 다시 걷겠다는 희망과 기대는 지옥과 같은 평화시장의 노동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꿈을 알게 된다.

그가 평화시장에 들어가서 본 노동자의 현실은 “모든 생활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말할당하고 오직 고삐에 매인 금수처럼 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하여 끌려 다니는” 삶이었고, “그저 빨리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생명체”였다.

평화시장의 노동현실을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한 전태일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 억울함을 없애기 위하여 행동으로 나서게 된다. 그 첫 시도로 그는 미싱사를 그만 두고 미싱사 월급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재단 보조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의 가정 형편으로 볼 때 재단 보조가 된다는 것은 집안 생계에 큰 위협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화시장 어린 여공들의 참상을 안타까움과 울분 속에 지켜보던 전태일은 가족에게 돈 몇 푼 갖다주기 위해 고분고분 지내는 것보다는 어린 여공들 편에서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재단사는 주인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재단사가 되어 여공들 편에서 업주와 협상을 함으로써 여공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돈벌이에 타격을 주는 재단사를 용인하는 업주는 없었다. 이 바닥에서는 최소한의 인정을 베푸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결국 2년여의 경험을 통해 평화시장에 첫발을 내딛을 때의 꿈, 재단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의 기대는 모두 환상이었음을 깨우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이 시기에 전태일은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된다.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던 여공이 폐병 3기로 쓰러진 것이다. 여기서 전태일은 인간을 기계처럼 부리다 쓰레기처럼 버리는 현실을 보았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전태일은 비정한 현실과 잔인한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전태일은 전평 활동을 했던 아버지를 통해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 3) 바보회 조직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사실은 전태일에게는 암흑 속의 한줄기 빛이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조차 몰랐던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평화시장의 노동현실을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 첫 걸음이 '바보회'의 창립이었다. 바보회는 1968년 말 경 전태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제단사들의 모임으로 이듬해 6월에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가졌다. 창립총회에서 역시 전태일이 제안한 '바보회'란 명칭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조차 모르고 법으로 정해진 근로기준을 생취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혹사당해 온 '우리는 바보'였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 자리에서 전태일은 바보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고난에 찬 노동운동의 지도자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바보회를 창립한 회원들은 밤을 새워 바보회의 활동지침을 만들었다. 첫째, 평화시장 3만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대로 준수되도록 투쟁하는 것이 당분간의 목표이다. 둘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튼튼히 하고 확장해야 한다. 셋째, 평화시장 근로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하자. 넷째, 돈 많은 독지가를 찾아내어 평화시장 안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모범업체를 만들자.

바보회를 창립한 후 얼마 안 되어 전태일은 해고를 당한다. 해고된 후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전전하던 전태일은 1969년 8~9월 경 바짓집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노동실태 조사용 설문지 300매를 만들어 바보회 회원들과 함께 비밀리에 돌린다. 그러나 이런 일이 처음이라 곳곳에서 업주들에게 발각되고 바보회 회원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전태일은 평화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되었고 바보회 회원들도 더 이상 바보회를 계속 하다가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에 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바보회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점차 활동이 위축되면서 사실상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전태일은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근로감독관과 노동청을 찾아갔다가 오히려 구박만 당하면서 커다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그는 여기에서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청, 나아가 그 이상의 힘들이 업주들과 결탁하여 노동자를 누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로 인해 그는 잠시 실의와 자학의 늪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스무 해 그의 삶이 그러했듯이 그는 여기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 4) 좌절을 딛고 인간해방의 사상으로 스스로를 다시 세우다.

바보회 회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전태일은 다시 혼자 남았다. 평화시장에서 좌절당하고 쫓겨난 전태일은 그 이후 몇 달 동안 공사판 노가다 일을 나간다. 그러나 당시 그는 단지 입에 풀칠하기 위해 공사판 노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다. 이 시기에 그는 각성된 밑바닥 인간으로서, 주체적으로 세상과 인간을 통찰하고 잘못된 현실을 바꾸어 나가려는 사상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갔다.

그는 주체적인 실천을 통해 달라진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보았다. 또한 인간이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 자신은 어떤 세상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다. 모든 인간은 "생각할 줄 알며,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영장"이며 "고귀한 생명체"이다. 그리고 "부한 자의 생명처럼 약자의 생명도 고귀한 것"이고 "가치적으로 동등한 인간"이다.

또한 인간은 "서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서로의 일부"이자 "전체의 일부"인 유대관계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서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인간적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떠한 인간적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 문제이다.”

그런데 그가 본 세상은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박탈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세대”였다. “저희들의 전체의 일부를 메마른 길바닥 위에도 아무렇게나 내던져버리는” 세상이었다.

이러한 세상에서 밑바닥 인간의 삶은 “저주받아야 할 현실이 쓰다 버린” 쪽박이었으며, “그저 빨리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는 생명체”였다. “인간의 개성과 참인간적 본능의 총족을 무시당하고 희망의 가치를 잘린 채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략한 인간상”이었다.

그는 마도로스 모자를 쓴 공사판 노동자를 보면서 절규한다. “얼마나 위로해야 할 나의 전체의 일부냐!” 그리고 다짐한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박탈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세대에서 나는 절대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어떠한 불의도 묵과하지 않고 주목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205)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는 민중들을 부스러기로 만드는 기득권의 “덩어리에 다시 뭉치보기를 희망”하지 않고 그 뭉친 덩어리를 영원히 뭉칠 수 없도록 분해해 버리겠다고 결의한다. “덩어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부스러기란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5) 결단과 실천

전태일은 1970년 4월말 경부터 삼각산 임마뉴엘 수도원 교회신축 공사장에서 4개월 가량을 ‘노가다’ 일을 하면서 보낸다. 이미 그의 사상은 성숙해 있었고 가야 할 길도 분명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는 데는 또 한번의 고뇌와 시간이 필요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는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장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

전태일은 그 해 8월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9월 그는 평화시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용케 취직을 하고 바보회 동료들을 다시 모으고 다른 제단사들도 규합하여 삼동친목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한다. 삼동친목회는 바보회와는 달리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노동조합으로 발전시킬 것을 전망하는 본격적인 노동운동 조직이었다.

삼동친목회를 만들기 전부터 전태일은 틈나는 대로 서울시청, 노동청 등을 돌아다니며 진정서를 내기로 하고 신문기자들을 만나거나 방송국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는 근거자료만 충분히 갖추면 평화시장 노동지역의 실태를 보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전태일과 그의 동료들은 평화시장 근로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에 착수한다. 이번에는 바보회 시절 실패의 경험을 거울삼아 신중을 기한 결과 126매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10월 6일 이 설문조사를 기초로 9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종업원 근로개선 진정서'를 노동청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7일 경향신문에 이 진정서의 내용이 기사로 실리면서 평화시장 노동자의 참상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은 해결책은 전태일과 그의 동료들을 회유하고 기만하는 것이었다. "취직을 하면 근로조건을 1주일 내로 개선해 주겠다"는 근로기준국장의 감언이설에 모두 취직을 하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따졌으나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다.

## 6) 투쟁과 죽음

남은 것은 본격적인 투쟁뿐이었다. 삼동친목회에서는 전태일의 제안에 따라 노동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20일 노동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데모 계획을 눈치챈 근로감독관이 찾아와 "근로감독권을 발휘하여 요구조건을 들어주도록 할 테니 데모를 보류해 달라"고 사정, 10·20 데모를 일단 보류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다음날 만난 근로감독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희들 요구조건은 당초부터 실현불가능한 것이니 포기하라"며 "국정감사도 끝났으니 할 대로 해보라"고 배짱을 내밀었다.

삼동회 회원들은 격분하여 다시 10월 24일 평화시장 다시 데모를 하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통수를 친 형사의 농간 때문에 무산되었다. 전태일과 그의 동료들의 기세에 당황한 업주들과 형사는 다시 11월 7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시간 끌기 작전이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11월 7일 다시 모인 삼동회 회원들은 11월 13일 오후 1시 다시 시위를 하되,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회청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거사계획은 세운 후 전태일은 "이번만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단코 물러서지 말고 싸우자"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목숨을 던질 엄청난 결심을 품고 자신의 마음을 다지는 말인 줄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11월 13일 1시경, 평화시장에는 출동함 경찰과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진을 치고 있었다. 업주

들은 종업원들을 단속하고 경비원과 형사들은 국민은행 앞길로 나오는 통로를 막고 노동자들이 나오지 못하게 했다. 삼동친목회 회원들 중 몇 사람도 경비원들에 의해 감금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몇 차례 시위를 경험한 노동자들이 하나 둘 몰려들어 삼시간에 5백여 명이 국민은행 앞길에서 웅성거렸다. 평화시장에는 아연 긴장감이 감돌았다.



1시 30분 경. 전태일과 회원 한 명은 준비된 플래카드를 펼쳐두고 계단을 내려가려 했으나 형사들에 막혀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플래카드는 찢어져 버렸다. 전태일은 동료들에게 먼저 내려가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혼자 남았다. 그리고 10분 후 전태일은 불타는 몸으로 동료들과 노동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갔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그는 몇 마디 구호를 짐승의 소리처럼 외치고 쓰러졌다. 사람들이 불을 끌 엄두도 못 냈다.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는 마지막 생명의 힘을 다 짜내어 부르짖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는 앰블런스에 의해 인근 메디칼 센터로 옮겨졌다. 그리고 삼동회 회원들과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었던 노동자들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누가 전태일을 죽였는가!”

뺨맞긴 플래카드 대신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쓴 동료들은 긴급출동한 기동경찰과 혈투를 벌이며 동대문 쪽으로 밀려갔다. 그리고 경찰의 곤봉에 머리가 깨어지고 군화발에 짓밟히면서 경찰서로 끌려갔다.

병원으로 옮겨진 전태일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굶다 이룬 일 어머니가 꼭 이루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는 세 번이나 다짐을 받았다. 그리고 병원에 따라온 친구들을 불러 자신이 죽더라도 하려던 일을 포기하지 말 것을 맹세하게 하고서야 잠잠해졌다. 전태일은 응급치료만 받고 서너 시간 방치되어 있다가 성모병원으로 옮겨진 전태일은 저녁에 “배가고프다……”라는 마지막 말 한 마디를 남기고 이날 10시경 스물 두 해의 삶을 마감했다.

## 5. 전태일의 역사적 의미

전태일의 죽음에 대해 『전태일 평전』의 저자 고 조영래 변호사는 1976년에 쓴 서문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그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고, 평생을 주린 창자가 차도록 밥 한끼 포식해 본 일이 드물었으며 죽을 때까지도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았지만, 비록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존경을 받아보지 못하고 이름 없이 살아온 핫빠리 인생이었지만,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죽어간 그의 죽음만은 세상에 알려졌고, 세상에 충격을 주었고, 마침내 얼음처럼 굳고 차디찬 현실을 뚫는 불꽃이 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그의 죽음이 세상에 던진 충격, 그의 죽음이 우리 민중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오늘 이 시점에서까지도 충분히 측량할 수가 없다.”

## 2000년대의 전태일,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등의 비전형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기적 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 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이 2년에 달하면 기업에는 정규직 전환 의무가 부여된다. 지난해 이랜드그룹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각 기업에서 2년 고용 직전에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사태가 재연할 수 있다. 같은 회사와 공장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종류의 일을 동일한 시간 동안 함에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을 받고 연금과 의료 혜택에서 차별받으며 2년마다 해고의 위협에 놓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부 추계 560만 명, 노동계 추계 860만 명을 넘어섰다.

이와 별도로 법 적용 대상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의 ‘간접고용’ 또는 ‘외주화’를 선택함으로써 애초에 법 적용을 회피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원청기업이 사실상의 고용주지만 외주업체 소속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외면한다. 슬프게도 상당수의 정규직 노조는 외주화에 쉽게 동의해주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가입한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한국 정부가 이행할 것을 강력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는 정부, 기업, 노동계, 진보운동 진영 모두의 과제다. “전면적 정규직 전환”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는 고용전략 창출과 법제 개편은 어렵다.



## 1987년 6월 항쟁과 2008년 촛불- 민주주의와 저항권

### 80년의 시대상황

1970년대 박정희독재의 종말과 1980년 광주를 겪은 이후 한국 민족민주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였다. 1985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국민의 억눌렸던 민주화 요구가 분출되면서 군사독재세력과 민주세력 사이의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1987년은 한국 사회 민주운동의 전환점이었다.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은 그해 1월 14일 박종철군의 고문·살인사건을 계기로 광범위한 확대되게 된다.

사건이 터지자 당국은 평소 해왔던 대로 사건을 얼버무리려 했다. 경찰 당국은 박종철 군이 심문을 시작한 지 30분 후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추어 문공부 홍보조정실은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시달하여 '박군이 심장마비로 쇼크사한 것으로, 1단 기사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검 결과 박군은 수십 군데에 이르는 피멍 자국이 있었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은 흔적이 뚜렷했다. 이 사건은 곧장 전두환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와 추도미사 및 기도회, 항의농성 등도 잇따랐다.

그러던 중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터졌다.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 7주년 추도미사에서 **김승훈 신부**가 "당국은 철저하게 이 사건을 은폐했고 그 과정 일체도 조작해서 국민을 다시 한번 속였다"며 박종철 군을 고문한 경관이 모두 다섯 명임을 폭로했던 것이다. 민중은 경악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민중의 분노는 한 점의 불꽃만 당기어진다던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기세였다. 이제 민중의 분노만 담아 낼 그릇만 준비하면 되었다.

6월 10일 아침, '민정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후보 지명대회'. 같은 육사 11기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손을 마주 잡고 치켜올림으로써 권력승계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과시했다. 그러나 이날의 잠실 체육관은 분노한 민중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외로운 섬이었다. 같은 시간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22개 도시는 24만여 명(국민운동본부 집계, 경찰 발표는 1만 8천5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역사적인 6월항쟁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이날 서울에서만만도 30여 군데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초조해진 경찰은 해가 지자 더욱 포악해져 무차별 폭행을 가하면서 전국에 걸쳐 3천8백여 명을 무차별 연행했다. 그러던 중 서울 도심의 시위대 일부가 명동성당으로 밀려갔다. 밤 10시가 되자 8백 명으로 불어난 명동성당의 시위대는 햇불을 들고 맹렬한 투쟁전을 벌여 경찰을 밀어내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 이것이 전국을 휩쓴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5일간의 명동성당 농성투쟁의 시작이었다. 민중의 투쟁 열기는 갈수록 높아져 6월 18일 전국 16개 도시에서 항쟁 기간중 최대 인파인 1백50만명(국민운동본부 집계, 경찰 발표는 8만 6천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투쟁의

파고는 높아지고 경찰력은 한계가 드러냄에 따라 전두환 정권의 일각에서는 광주처럼 군대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결국 6월 29일 노태우는 직선제 개헌의 수용과 구속자 석방 및 김대중 씨의 사면·복권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이후에도 민중을 줄어들이지 않고 더 늘어나 항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뚜렷이 표현되었다. 6월 9일 직격탄에 맞아 여러 날 사경을 헤매다 숨을 거둔 연세대생 이한열 군의 장례식이 치러진 7월 9일 광장에는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군 장례식은 항쟁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자리였다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년 새해는 혹독한 추위 속에 밝았다. 86년 한해 내내 이어진 수많은 투쟁의 여파로 민주화단체들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런 결과로 전국대 사태 당시에는 학생들을 옹호하는 성명서 한 장 발표할 단체가 남아 있지 않았다. 이 무인지경의 초토 위에서도 전두환 정권은 끊임없이 'ML당' '반체동맹당' 등 조직사건을 엮어냈다. 수사기관의 고문도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벌써 의문의 변사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언론의 침묵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5공은 이미 고문 생지옥이었다.

그렇게 새해가 밝고 보름이 지났다. 1월15일자 중앙일보 사회면에 '경찰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평범한 2단짜리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기사의 파장은 컸다. 그날 밤 9시, 부검이 이뤄졌다. 그후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 황적준은 물고 문 도중 그 대학생이 질식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적준은 '사인을 심장마비로 해달라'는 경찰의 협박을 뿌리치고 의사의 양심을 지켰다. 저들이 고문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맞아떨어진 순간이었다. 어쨌거나, 이튿날인 16일 서둘러 화장된 대학생은 한줄 제가 돼 임진강의 찬바람에 날아가버렸다.

박종철.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광주사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미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당시 지지 시위로 구류 5일.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 시위 참여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언어학과 학생회장.

그는 1월13일 자정 무렵, 서울 신림동 하숙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 의해 세칭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다. 아무런 합법적 절차도 없었던 불법 납치였다. 그는 각종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된 학교 선배 박종운의 소재를 댈 것을 추궁받는다. 실은 박종운이 두 차레 그의 하숙집을 다녀갔지만, 그는 모른다고 잡아맨다. 구타와 폭행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내 입을 열지 않자, 물이 가득 찬 욕조에다 머리 처박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물고문은

10여시간 지속된다. 14일 오전 11시쯤, 수사관들은 그가 숨을 멈춘 것을 발견하고 당황한다. 그들은 박종철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후환을 차단하기 위해 곧바로 증거를 인멸하고 서둘러 시신 화장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다.

신문 보도로 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17일 마지 못해 자체 수사에 들어갔고 곧 진상이라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박종철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책상을 '탁' 치니 '억' 하며 쓰러져 인근 중앙대 부속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낮 12시쯤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유치하게 날조된 이 거짓 말은 고문 의혹에 기름을 끼얹었다. 눈 뜨고는 차마 못볼 만행 앞에 그때까지 암전히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던 신문들이 의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19일, 드디어 경찰은 물고문 사실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고문 경관 조한경과 강진규를 고문치사 혐의로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야당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정확한 사인 규명에 들어가고, 주력이 대부분 투옥된 상태의 민주화운동권은 종로5가 기독교회관과 명동성당에 다시 집결해 대책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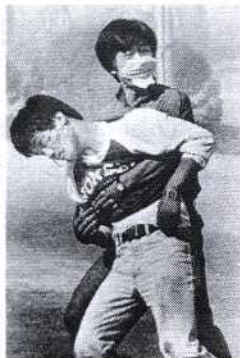
고문 경관 2명이 구속됨으로써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던 박종철 사건은 넉달 뒤 더 큰 회오리를 몰고 왔다. 87년 5월18일 명동성당. 광주항쟁 7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미사가 열리고 있었다. 미사가 끝날 즈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김승훈이 단상에서 한 장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제목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은 조작되었다'였다.

성명서의 내용은 가감 없는 사실이었다. 태풍이었다. 국민들은 넉달 전 박종철 고문치사 당시보다 더욱 경악하고 분노했다. 경찰이 고문살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어떻게든 파장을 약화시키려고 고문 범죄의 진상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사제단이 밝힌 고문 가담자 황정웅·반금곤·이정호를 서둘러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은폐조작 모의를 주도한 박처원 치안감 등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간부들을 연이어 구속했다.

## 이한열 열사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월 9일, 다음날 열릴 예정의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여기서의 고문살인은 같은 해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일컫음)를 앞두고 연세대에서 열린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후의 시위 도중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아 한달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7월 5일 스물두살의 나이에 사망했다.

경찰이 쏜 총류탄(SY-44)에 맞은 이한열은 뒷머리의 피가 얼굴에 번졌고, 코에서도 피가 났다. 바로 옆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을 때까지만 해도 이한열은 "뒷통수가 아프다" "나 괜찮아?" "온몸이





마비되는 느낌이다” 등 말을 했다. 그러나 오후 5시30분께 이한열은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떠보라는 의사의 말에 반응하지 못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내일 시체에 나가야 하는데”였다.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한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오전 1시께는 ‘심장정지 빈사 상태’에 빠졌다. 긴급하게 혈압 상승제를 투입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새벽 2시5분께 이한열의 심장 박동은 영원히 멈춰버렸다. 주치의 정상섭 박사는 “이한열의 직접 사인은 심폐기능 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폐렴, 최초 선행사인은 뇌 손상이었다. 이한열의 뇌손상은 첫째 두개강 내 출혈, 둘째 뇌좌상, 셋째 두개강 내 이물질 함유”라고 밝혔다. 2시20분께 이한열의 주검은 의과대 본관 건물 지하의 영안실에 안치됐다. 이한열이 남긴 노트엔 당시 젊은이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피로 얼룩진 땅, 차라리 내가 제물이 되어 최후탄 가스로 얼룩진 저 하늘 위로 날아 오르고 싶다.” 이 글대로 이한열은 민주화의 제단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다.

## 6월 항쟁의 의미

1987년의 6월항쟁은 전국적으로 연인원 500만 명 이상이 참가해 20여일 동안 전개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었다. 상당수 국민들은 그 자신 6월항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쟁취한 주인공의 하나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6월항쟁은 우리사회 구석구석의 잠재력을 동력화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국민의 사회의식을 폭넓게 일깨웠다. 그에 따라 노동자·농민·청년학생은 물론 지식인·예술인·교사·종교인들도 분야별로 다양하게 결집해 세력화와 조직화를 이루었으며 시민운동·환경운동 등도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6월항쟁의 성과들은 장차 새로운 사회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人海이문 시경안

방학중학교 1학년 1반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21명, 22명, 23명, 24명, 25명, 26명, 27명, 28명, 29명, 30명, 31명, 32명, 33명, 34명, 35명, 36명, 37명, 38명, 39명, 40명, 41명, 42명, 43명, 44명, 45명, 46명, 47명, 48명, 49명, 50명, 51명, 52명, 53명, 54명, 55명, 56명, 57명, 58명, 59명, 60명, 61명, 62명, 63명, 64명, 65명, 66명, 67명, 68명, 69명, 70명, 71명, 72명, 73명, 74명, 75명, 76명, 77명, 78명, 79명, 80명, 81명, 82명, 83명, 84명, 85명, 86명, 87명, 88명, 89명, 90명, 91명, 92명, 93명, 94명, 95명, 96명, 97명, 98명, 99명, 100명, 101명, 102명, 103명, 104명, 105명, 106명, 107명, 108명, 109명, 110명, 111명, 112명, 113명, 114명, 115명, 116명, 117명, 118명, 119명, 120명, 121명, 122명, 123명, 124명, 125명, 126명, 127명, 128명, 129명, 130명, 131명, 132명, 133명, 134명, 135명, 136명, 137명, 138명, 139명, 140명, 141명, 142명, 143명, 144명, 145명, 146명, 147명, 148명, 149명, 150명, 151명, 152명, 153명, 154명, 155명, 156명, 157명, 158명, 159명, 160명, 161명, 162명, 163명, 164명, 165명, 166명, 167명, 168명, 169명, 170명, 171명, 172명, 173명, 174명, 175명, 176명, 177명, 178명, 179명, 180명, 181명, 182명, 183명, 184명, 185명, 186명, 187명, 188명, 189명, 190명, 191명, 192명, 193명, 194명, 195명, 196명, 197명, 198명, 199명, 200명, 201명, 202명, 203명, 204명, 205명, 206명, 207명, 208명, 209명, 210명, 211명, 212명, 213명, 214명, 215명, 216명, 217명, 218명, 219명, 220명, 221명, 222명, 223명, 224명, 225명, 226명, 227명, 228명, 229명, 230명, 231명, 232명, 233명, 234명, 235명, 236명, 237명, 238명, 239명, 240명, 241명, 242명, 243명, 244명, 245명, 246명, 247명, 248명, 249명, 250명, 251명, 252명, 253명, 254명, 255명, 256명, 257명, 258명, 259명, 260명, 261명, 262명, 263명, 264명, 265명, 266명, 267명, 268명, 269명, 270명, 271명, 272명, 273명, 274명, 275명, 276명, 277명, 278명, 279명, 280명, 281명, 282명, 283명, 284명, 285명, 286명, 287명, 288명, 289명, 290명, 291명, 292명, 293명, 294명, 295명, 296명, 297명, 298명, 299명, 300명, 301명, 302명, 303명, 304명, 305명, 306명, 307명, 308명, 309명, 310명, 311명, 312명, 313명, 314명, 315명, 316명, 317명, 318명, 319명, 320명, 321명, 322명, 323명, 324명, 325명, 326명, 327명, 328명, 329명, 330명, 331명, 332명, 333명, 334명, 335명, 336명, 337명, 338명, 339명, 340명, 341명, 342명, 343명, 344명, 345명, 346명, 347명, 348명, 349명, 350명, 351명, 352명, 353명, 354명, 355명, 356명, 357명, 358명, 359명, 360명, 361명, 362명, 363명, 364명, 365명, 366명, 367명, 368명, 369명, 370명, 371명, 372명, 373명, 374명, 375명, 376명, 377명, 378명, 379명, 380명, 381명, 382명, 383명, 384명, 385명, 386명, 387명, 388명, 389명, 390명, 391명, 392명, 393명, 394명, 395명, 396명, 397명, 398명, 399명, 400명, 401명, 402명, 403명, 404명, 405명, 406명, 407명, 408명, 409명, 410명, 411명, 412명, 413명, 414명, 415명, 416명, 417명, 418명, 419명, 420명, 421명, 422명, 423명, 424명, 425명, 426명, 427명, 428명, 429명, 430명, 431명, 432명, 433명, 434명, 435명, 436명, 437명, 438명, 439명, 440명, 441명, 442명, 443명, 444명, 445명, 446명, 447명, 448명, 449명, 450명, 451명, 452명, 453명, 454명, 455명, 456명, 457명, 458명, 459명, 460명, 461명, 462명, 463명, 464명, 465명, 466명, 467명, 468명, 469명, 470명, 471명, 472명, 473명, 474명, 475명, 476명, 477명, 478명, 479명, 480명, 481명, 482명, 483명, 484명, 485명, 486명, 487명, 488명, 489명, 490명, 491명, 492명, 493명, 494명, 495명, 496명, 497명, 498명, 499명, 500명, 501명, 502명, 503명, 504명, 505명, 506명, 507명, 508명, 509명, 510명, 511명, 512명, 513명, 514명, 515명, 516명, 517명, 518명, 519명, 520명, 521명, 522명, 523명, 524명, 525명, 526명, 527명, 528명, 529명, 530명, 531명, 532명, 533명, 534명, 535명, 536명, 537명, 538명, 539명, 540명, 541명, 542명, 543명, 544명, 545명, 546명, 547명, 548명, 549명, 550명, 551명, 552명, 553명, 554명, 555명, 556명, 557명, 558명, 559명, 560명, 561명, 562명, 563명, 564명, 565명, 566명, 567명, 568명, 569명, 570명, 571명, 572명, 573명, 574명, 575명, 576명, 577명, 578명, 579명, 580명, 581명, 582명, 583명, 584명, 585명, 586명, 587명, 588명, 589명, 590명, 591명, 592명, 593명, 594명, 595명, 596명, 597명, 598명, 599명, 600명, 601명, 602명, 603명, 604명, 605명, 606명, 607명, 608명, 609명, 610명, 611명, 612명, 613명, 614명, 615명, 616명, 617명, 618명, 619명, 620명, 621명, 622명, 623명, 624명, 625명, 626명, 627명, 628명, 629명, 630명, 631명, 632명, 633명, 634명, 635명, 636명, 637명, 638명, 639명, 640명, 641명, 642명, 643명, 644명, 645명, 646명, 647명, 648명, 649명, 650명, 651명, 652명, 653명, 654명, 655명, 656명, 657명, 658명, 659명, 660명, 661명, 662명, 663명, 664명, 665명, 666명, 667명, 668명, 669명, 670명, 671명, 672명, 673명, 674명, 675명, 676명, 677명, 678명, 679명, 680명, 681명, 682명, 683명, 684명, 685명, 686명, 687명, 688명, 689명, 690명, 691명, 692명, 693명, 694명, 695명, 696명, 697명, 698명, 699명, 700명, 701명, 702명, 703명, 704명, 705명, 706명, 707명, 708명, 709명, 710명, 711명, 712명, 713명, 714명, 715명, 716명, 717명, 718명, 719명, 720명, 721명, 722명, 723명, 724명, 725명, 726명, 727명, 728명, 729명, 730명, 731명, 732명, 733명, 734명, 735명, 736명, 737명, 738명, 739명, 740명, 741명, 742명, 743명, 744명, 745명, 746명, 747명, 748명, 749명, 750명, 751명, 752명, 753명, 754명, 755명, 756명, 757명, 758명, 759명, 760명, 761명, 762명, 763명, 764명, 765명, 766명, 767명, 768명, 769명, 770명, 771명, 772명, 773명, 774명, 775명, 776명, 777명, 778명, 779명, 780명, 781명, 782명, 783명, 784명, 785명, 786명, 787명, 788명, 789명, 790명, 791명, 792명, 793명, 794명, 795명, 796명, 797명, 798명, 799명, 800명, 801명, 802명, 803명, 804명, 805명, 806명, 807명, 808명, 809명, 810명, 811명, 812명, 813명, 814명, 815명, 816명, 817명, 818명, 819명, 820명, 821명, 822명, 823명, 824명, 825명, 826명, 827명, 828명, 829명, 830명, 831명, 832명, 833명, 834명, 835명, 836명, 837명, 838명, 839명, 840명, 841명, 842명, 843명, 844명, 845명, 846명, 847명, 848명, 849명, 850명, 851명, 852명, 853명, 854명, 855명, 856명, 857명, 858명, 859명, 860명, 861명, 862명, 863명, 864명, 865명, 866명, 867명, 868명, 869명, 870명, 871명, 872명, 873명, 874명, 875명, 876명, 877명, 878명, 879명, 880명, 881명, 882명, 883명, 884명, 885명, 886명, 887명, 888명, 889명, 890명, 891명, 892명, 893명, 894명, 895명, 896명, 897명, 898명, 899명, 900명, 901명, 902명, 903명, 904명, 905명, 906명, 907명, 908명, 909명, 910명, 911명, 912명, 913명, 914명, 915명, 916명, 917명, 918명, 919명, 920명, 921명, 922명, 923명, 924명, 925명, 926명, 927명, 928명, 929명, 930명, 931명, 932명, 933명, 934명, 935명, 936명, 937명, 938명, 939명, 940명, 941명, 942명, 943명, 944명, 945명, 946명, 947명, 948명, 949명, 950명, 951명, 952명, 953명, 954명, 955명, 956명, 957명, 958명, 959명, 960명, 961명, 962명, 963명, 964명, 965명, 966명, 967명, 968명, 969명, 970명, 971명, 972명, 973명, 974명, 975명, 976명, 977명, 978명, 979명, 980명, 981명, 982명, 983명, 984명, 985명, 986명, 987명, 988명, 989명, 990명, 991명, 992명, 993명, 994명, 995명, 996명, 997명, 998명, 999명, 1000명, 1001명, 1002명, 1003명, 1004명, 1005명, 1006명, 1007명, 1008명, 1009명, 1010명, 1011명, 1012명, 1013명, 1014명, 1015명, 1016명, 1017명, 1018명, 1019명, 1020명, 1021명, 1022명, 1023명, 1024명, 1025명, 1026명, 1027명, 1028명, 1029명, 1030명, 1031명, 1032명, 1033명, 1034명, 1035명, 1036명, 1037명, 1038명, 1039명, 1040명, 1041명, 1042명, 1043명, 1044명, 1045명, 1046명, 1047명, 1048명, 1049명, 1050명, 1051명, 1052명, 1053명, 1054명, 1055명, 1056명, 1057명, 1058명, 1059명, 1060명, 1061명, 1062명, 1063명, 1064명, 1065명, 1066명, 1067명, 1068명, 1069명, 1070명, 1071명, 1072명, 1073명, 1074명, 1075명, 1076명, 1077명, 1078명, 1079명, 1080명, 1081명, 1082명, 1083명, 1084명, 1085명, 1086명, 1087명, 1088명, 1089명, 1090명, 1091명, 1092명, 1093명, 1094명, 1095명, 1096명, 1097명, 1098명, 1099명, 1100명, 1101명, 1102명, 1103명, 1104명, 1105명, 1106명, 1107명, 1108명, 1109명, 1110명, 1111명, 1112명, 1113명, 1114명, 1115명, 1116명, 1117명, 1118명, 1119명, 1120명, 1121명, 1122명, 1123명, 1124명, 1125명, 1126명, 1127명, 1128명, 1129명, 1130명, 1131명, 1132명, 1133명, 1134명, 1135명, 1136명, 1137명, 1138명, 1139명, 1140명, 1141명, 1142명, 1143명, 1144명, 1145명, 1146명, 1147명, 1148명, 1149명, 1150명, 1151명, 1152명, 1153명, 1154명, 1155명, 1156명, 1157명, 1158명, 1159명, 1160명, 1161명, 1162명, 1163명, 1164명, 1165명, 1166명, 1167명, 1168명, 1169명, 1170명, 1171명, 1172명, 1173명, 1174명, 1175명, 1176명, 1177명, 1178명, 1179명, 1180명, 1181명, 1182명, 1183명, 1184명, 1185명, 1186명, 1187명, 1188명, 1189명, 1190명, 1191명, 1192명, 1193명, 1194명, 1195명, 1196명, 1197명, 1198명, 1199명, 1200명, 1201명, 1202명, 1203명, 1204명, 1205명, 1206명, 1207명, 1208명, 1209명, 1210명, 1211명, 1212명, 1213명, 1214명, 1215명, 1216명, 1217명, 1218명, 1219명, 1220명, 1221명, 1222명, 1223명, 1224명, 1225명, 1226명, 1227명, 1228명, 1229명, 1230명, 1231명, 1232명, 1233명, 1234명, 1235명, 1236명, 1237명, 1238명, 1239명, 1240명, 1241명, 1242명, 1243명, 1244명, 1245명, 1246명, 1247명, 1248명, 1249명, 1250명, 1251명, 1252명, 1253명, 1254명, 1255명, 1256명, 1257명, 1258명, 1259명, 1260명, 1261명, 1262명, 1263명, 1264명, 1265명, 1266명, 1267명, 1268명, 1269명, 1270명, 1271명, 1272명, 1273명, 1274명, 1275명, 1276명, 1277명, 1278명, 1279명, 1280명, 1281명, 1282명, 1283명, 1284명, 1285명, 1286명, 1287명, 1288명, 1289명, 1290명, 1291명, 1292명, 1293명, 1294명, 1295명, 1296명, 1297명, 1298명, 1299명, 1300명, 1301명, 1302명, 1303명, 1304명, 1305명, 1306명, 1307명, 1308명, 1309명, 1310명, 1311명, 1312명, 1313명, 1314명, 1315명, 1316명, 1317명, 1318명, 1319명, 1320명, 1321명, 1322명, 1323명, 1324명, 1325명, 1326명, 1327명, 1328명, 1329명, 1330명, 1331명, 1332명, 1333명, 1334명, 1335명, 1336명, 1337명, 1338명, 1339명, 1340명, 1341명, 1342명, 1343명, 1344명, 1345명, 1346명, 1347명, 1348명, 1349명, 1350명, 1351명, 1352명, 1353명, 1354명, 1355명, 1356명, 1357명, 1358명, 1359명, 1360명, 1361명, 1362명, 1363명, 1364명, 1365명, 1366명, 1367명, 1368명, 1369명, 1370명, 1371명, 1372명, 1373명, 1374명, 1375명, 1376명, 1377명, 1378명, 1379명, 1380명, 1381명, 1382명, 1383명, 1384명, 1385명, 1386명, 1387명, 1388명, 1389명, 1390명, 1391명, 1392명, 1393명, 1394명, 1395명, 1396명, 1397명, 1398명, 1399명, 1400명, 1401명, 1402명, 1403명, 1404명, 1405명, 1406명, 1407명, 1408명, 1409명, 1410명, 1411명, 1412명, 1413명, 1414명, 1415명, 1416명, 1417명, 1418명, 1419명, 1420명, 1421명, 1422명, 1423명, 1424명, 1425명, 1426명, 1427명, 1428명, 1429명, 1430명, 1431명, 1432명, 1433명, 1434명, 1435명, 1436명, 1437명, 1438명, 1439명, 1440명, 1441명, 1442명, 1443명, 1444명, 1445명, 1446명, 1447명, 1448명, 1449명, 1450명, 1451명, 1452명, 1453명, 1454명, 1455명, 1456명, 1457명, 1458명, 1459명, 1460명, 1461명, 1462명, 1463명, 1464명, 1465명, 1466명, 1467명, 1468명, 1469명, 1470명, 1471명, 1472명, 1473명, 1474명, 1475명, 1476명, 1477명, 1478명, 1479명, 1480명, 1481명, 1482명, 1483명, 1484명, 1485명, 1486명, 1487명, 1488명, 1489명, 1490명, 1491명, 1492명, 1493명, 1494명, 1495명, 1496명, 1497명, 1498명, 1499명, 1500명, 1501명, 1502명, 1503명, 1504명, 1505명, 1506명, 1507명, 1508명, 1509명, 1510명, 1511명, 1512명, 1513명, 1514명, 1515명, 1516명, 1517명, 1518명, 1519명, 1520명, 1521명, 1522명, 1523명, 1524명, 1525명, 1526명, 1527명, 1528명, 1529명, 1530명, 1531명, 1532명, 1533명, 1534명, 1535명, 1536명, 1537명, 1538명, 1539명, 1540명, 1541명, 1542명, 1543명, 1544명, 1545명, 1546명, 1547명, 1548명, 1549명, 1550명, 1551명, 1552명, 1553명, 1554명, 1555명, 1556명, 1557명, 1558명, 1559명, 1560명, 1561명, 1562명, 1563명, 1564명, 1565명, 1566명, 1567명, 1568명, 1569명, 1570명, 1571명, 1572명, 1573명, 1574명, 1575명, 1576명, 1577명, 1578명, 1579명, 1580명, 1581명, 1582명, 1583명, 1584명, 1585명, 1586명, 1587명, 1588명, 1589명, 1590명, 1591명, 1592명, 1593명, 1594명, 1595명, 1596명, 1597명, 1598명, 1599명, 1600명, 1601명, 1602명, 1603명, 1604명, 1605명, 1606명, 1607명, 1608명, 1609명, 1610명, 1611명, 1612명, 1613명, 1614명, 1615명, 1616명, 1617명, 1618명, 1619명, 1620명, 1621명, 1622명, 1623명, 1624명, 1625명, 1626명, 1627명, 1628명, 1629명, 1630명, 1631명, 1632명, 1633명, 1634명, 1635명, 1636명, 1637명, 1638명, 1639명, 1640명, 1641명, 1642명, 1643명, 1644명, 1645명, 1646명, 1647명, 1648명, 1649명, 1650명, 1651명, 1652명, 1653명, 1654명, 1655명, 1656명, 1657명, 1658명, 1659명, 1660명, 1661명, 1662명, 1663명, 1664명, 1665명, 1666명, 1667명, 1668명, 1669명, 1670명, 1671명, 1672명, 1673명, 1674명, 1675명, 1676명, 1677명, 1678명, 1679명, 1680명, 1681명, 1682명, 1683명, 1684명, 1685명, 1686명, 1687명, 1688명, 1689명, 1690명, 1691명, 1692명, 1693명, 1694명, 1695명, 1696명, 1697명, 1698명, 1699명, 1700명, 1701명, 1702명, 1703명, 1704명, 1705명, 1706명, 1707명, 1708명, 1709명, 1710명, 1711명, 1712명, 1713명, 1714명, 1715명, 1716명, 1717명, 1718명, 1719명, 1720명, 1721명, 1722명, 1723명, 1724명, 1725명, 1726명, 1727명, 1728명, 1729명, 1730명, 1731명, 1732명, 1733명, 1734명, 1735명, 1736명, 1737명, 1738명, 1739명, 1740명, 1741명, 1742명, 1743명, 1744명, 1745명, 1746명, 1747명, 1748명, 1749명, 1750명, 1751명, 1752명, 1753명, 1754명, 1755명, 1756명, 1757명, 1758명, 1759명, 1760명, 1761명, 1762명, 1763명, 1764명, 1765명, 1766명, 1767명, 1768명, 1769명, 1770명, 1771명, 1772명, 1773명, 1774명, 1775명, 1776명, 1777명, 1778명, 1779명, 1780명, 1781명, 1782명, 1783명, 1784명, 1785명, 1786명, 1787명, 1788명, 1789명, 1790명, 1791명, 1792명, 1793명, 1794명, 1795명, 1796명, 1797명, 1798명, 1799명, 1800명, 1801명, 1802명, 1803명, 1804명, 1805명, 1806명, 1807명, 1808명, 1809명, 1810명, 1811명, 1812명,



## 거리에서 외치는 민주주의 - 촛불문화제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적극적으로 발언한 최초의 거리집회는 1898년 3월 독립협회의 주최로 서울 종로 네거리에서 열렸던 만민공동회이다. 만민공동회는 지금의 거리집회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최초의 만민공동회에는 무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나라의 독립과 개혁에 관해 발언했으며, 만민공동회는 횃수를 거둬하면서 독립협회의 영향에서 벗어난 독자적 민중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번의 촛불집회와 연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87년의 '6월항쟁'을 떠올린다. 전두환 군부독재의 종식과 민주화의 길을 연 6월항쟁은 전국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즐기차게 벌인 일련의 거리집회와 거리투쟁을 가리킨다. '독재 타도, 민주 쟁취'는 당시 가장 보편적 구호였으며, 한 줌의 독재세력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이 구호에 적극 동의했다. 그 결과 건국 40년 만에 비로소 민주화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6월항쟁이 최루탄과 화염병으로 상징된다면, '촛불'이 거리집회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은 2002년의 일이다. 그해 여름 두 여중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죽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11월에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때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시민들은 '촛불'을 밝혀두고 거리집회를 열었다. 두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밝혀진 촛불은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상징이자 평화시위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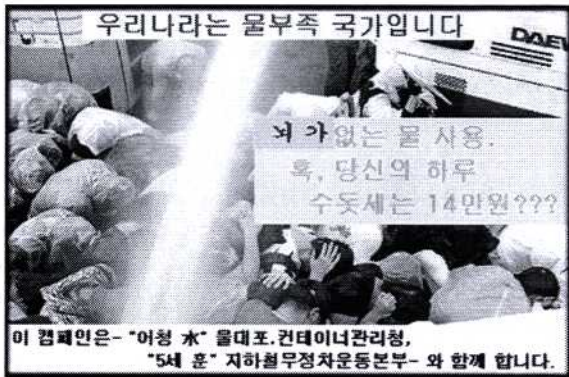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이번의 촛불집회도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안과 참여를 통해 열리게 되었다. 10대를 포함해서 시민들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과학적으로' 잘 알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은 누구나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당연히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부가 완강히 '소통'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리로 몰려나와 직접 의견을 밝히게 되었다.

이번의 촛불집회는 '독재 타도'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6월항쟁'과 다르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개혁'을 촉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2002년의 촛불집회'와도 다르다. 사안의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다.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광우병 물렛'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의 촛불집회는 부당하게 강요되는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생활정치적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촛불집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의 집회와는 다른 형태의 집회라는 것이다. 가두시위의 양상조차 이전과 아주 다르다. 경찰과 전투적으로 대결하기보다는 경찰 앞에서 돌아서버리고, 경찰 없는 곳으로 우회하며 행진한다. 행진하는 사람 자신도 어디로 어떻게 갈지 예측할 수 없기에 전체 흐름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흐름이 되었다. 나아가 카메라를 손에 든 대중들이 무선

전화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자신이 있는 상황을 다른 곳에 전달하고 다른 곳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움직이고 있다. 또 하나, 대중들이 경찰이나 체포에 대한 공포를 가볍게 넘어버렸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주동자를 조사하겠다고 하면, 경찰서 홈페이지로 달려가 "내가 주동했으니 나도 구속하라"고 대들고, 현장에서 연행하려 하면 자진해서 잡혀간다는 것이다.



공포를 '상실'한 채 신경망과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유연하게 움직이는 대중, 특정한 지도부가 없고 모두 '지도자'가 되어버린 대중, 이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지만 그 이질성이 충돌하며 방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결합하며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창안하는 대중, 그리고 가볍고 즐겁게 싸우는 대중, 이 새로운 양상의 대중이, 상상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 자료찾기..

이 자료집에 있는 내용은 각 단체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각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장애인 이동권 - <http://access.jinbo.net/>

가난은 죄가 아니잖아요 - <http://www.nojum.org/>

세상의 절반은 여성 - <http://www.womenandwar.net/>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 <http://www.chuntaeil.org/> , <http://www.nodong.org/>

1987년 6월 항쟁과 2008년 촛불 - <http://www.19870609.com/> ,

<http://blog.daum.net/jandung11>

<http://h21.hani.co.kr/>

## 다산인권센터는...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신념으로 활동하는 경기지역의 인권운동단체입니다. 민감하지만 따뜻한 인권 감수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한다는 긴장과 각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배제로 나타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현실을 바꾸기 위해 활동합니다. 한 사람의 소외는 사회전체의 소외와 다르지 않다는 믿음으로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부당한 관습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인권활동가들의 열정과 헌신만으로 인권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권교육과 인권문화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인권감수성을 갖고 스스로 인권적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웹진'다산인권'

웹진'다산인권'은 경기, 수원지역의 인권소식 또는 인권현안이 있는 곳의 인권이야기를 격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자 또는 논객이 되어 인권의 눈으로 세상보기 함께 할까요?

### 채식요리만들기동아리

채소로만 요리해도 진수성찬 ^^ 채식요리만들기 동아리는 요리도 같이 만들고, 먹거리에 대한 공부도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채식주의자가 아니어서 설레설레? 지금부터 하나씩 하면 되니까, 누구라도 오세요.

### 웹라디오 '인파속으로'

격주 월요일 난다와 남들이 진행하는 '인권은 방울방울' '소문난안테나' '몽상의누워서영화보기' '보양의길위에서떠우는편지' 등의 코너가 따뜻한 음악과 함께 전달됩니다. 기획, 편집, 선곡 등 라디오팀에 함께 해 주세요.

### 인권교육팀

청소년인권교육팀, 정신장애인권교육팀이 있어요. 교사, 학부모, 청소년어린이, 정신장애당사자, 가족, 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활동하고 싶은 분 오세요.